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10.8.(월)

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담 당 자	김 태 훈 사무관 (02-2100-2991)

제 목 : 한국경제(10.8일) 「 "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年 10% 이하로 절반 낮춰라" 」제하의 기사 관련

<보도 내용>

□ 한국경제는 「"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연 10% 이하로 절반 낮춰라"」 제하의 인터넷 기사(10.8일)에서,

○ "금융계는 금융당국이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명분을 앞세워 **임의로 중금리대출 가격을 정해 '관치'에 나서는 것**으로 보고 있다."

○ "한 은행 부행장은 '금리 자율화는 1990년대에 이미 정해진 것'이라며 금융당국이 **중금리대출이라고 해서 연 10% 이하로 책정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경영 원칙에 어긋난다.**'고 비판했다."

○ "은행권 관계자는 '중·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하면 **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줄일 것**'이라고 내다봤다." 라고 보도

<참고 내용>

□ 동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드립니다.

❶ 중금리대출은 금융권에 "강제되는" 대출이 아니며, 따라서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"금융회사의 금리 결정 자율성"과 무관함

- 중금리대출은, 대출상품의 '금리단층' 현상을 완화하고, 중·저신용 차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**금융권 자율로 운영하는 금융상품**으로,

  · 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취급실적과 연계된 **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***되며, **이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음**

  * 예 : (저축은행)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(30~50%) 산정시 중금리 대출실적은 150%로 인정

  (여전사) 총 자산대비 대출한도(30%) 적용시 중금리대출 실적은 80%로 축소하여 반영 등

❷ 금번에 **중금리대출 인정기준**(현행 평균금리 16.5%)**을 인하**한 것은 **업권별 비용요인을 감안하여 기준을 현실화**한 것

- 중금리대출의 현행 인정기준(평균금리 16.5%)은 **전 업권 중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권을 기준으로 설정**된 것으로,

- **은행 등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금융업권**에서는 중·저신용 차주를 선별하여 보다 **낮은 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미약한 한계**

  * 예 : **현재 은행권 자체중금리 금리대는 주로 5~10%대**이며, **15%를 초과하는 대출건은 없음**

  → 은행권에는 현행 중금리대출 **평균금리 요건**(16.5%)은 **사실상 금리인하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음**

❸ 중·저신용자에 대한 **중금리대출 공급은 오히려 증가할 것**으로 예상

- **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공급확대, 사잇돌대출 기준 완화,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 등 효과**를 감안할 때, **중금리대출 공급**은 **큰 폭으로 확대**될 것으로 **전망**(연 3.4조원 → **연 7.9조원**)

- 또한, **서울보증보험 정보제공체계 구축** 등으로 금융회사의 **중·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밀하게** 이루어진다면, **중금리대출 공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